해백일장 조직위원장과 지도법사 자우 스님,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 신도국장 영범,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, 이보윤 중앙신도회 부회장, 윤재웅 동국대 총장, 김춘식 만해백일장 심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. 또 수상자 101명과 가족들도 함께했다.

시상식은 한강 작가의 소설 '소년이 온다'를 바탕으로 한 낭독극으로 시작됐다. 낭독극에는 배우 남명렬·강애심·김다흰·정효정·김인호(왼쪽부터)가 참여했다.